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구례군 구례 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폭우 피해 ‘눈덩이’

12일 집계 결과 전남 3586억원·광주 659억원

광주·전남지역 폭우 피해가 집계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지난 10일 첫 조사에서 1100억원이던 피해액이 11일 2836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12일 집계에선 3586억원으로 증가했다. 유실 제방만 해도 지난 11일 조사에서 104개 하천 16.7km이던 것이 이날 조사에선 168개 하천 34.3km로 불어났다.

전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8개 시·군으로 늘리고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을 추가로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12일 전남도가 집계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이재민 331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가운데 2571명은 귀갓길로 746명은 현재 학교 체육관과 경로당 등에 대피 중이다. 재산 피해액은 전남 집계보다 750억원이 늘어난 3586억원으로 증가했다.

구례지역 피해액이 568억원에서 11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전 집계에서 누락된 축산피해 2만9400마리가 새롭게 잡혔고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전남 477억원에서 736억원으로 증가했다.

장성은 114억원에서 204억원으로, 화순은 75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증가했다. 담양지역 피해액 1274억원은 전남 집계와 동일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 575억원, 영광 93억원, 나주 83억원, 함평 79억원, 순천 7억원, 광양 2억원 등도 큰 피해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청지도 확대했다. 애초 구례·곡성·담양·화순·나주·함평 6개 시·군에서 장성·영광을 추가한 8개 시·군을 정부에 건의했다.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해 광양 다압면·순천 황전면도 추가로 신청했다.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는 주택 2559동이 피해를 봤다. 18동이 전파되고 17등은 반파됐으며, 2524등은 침수됐다. 전체 농경지(28만8000ha)의 2.5%인 7565ha가 침수·유실·낙과·도복·매몰됐다. 축산분야에서는 11개 시·군 187농가에서 44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양식장 22곳이 파손돼 650만마리 1290t이 유실됐고, 해양쓰레기 2960t이 발생했다.

공공시설도 하천 168곳과 수리시설 95곳, 도로 117곳, 철도 2개 노선, 상하수도 시설 71곳이 피해를 봤다. 유실된 제방만 국가·지방·소하천에 걸쳐 모두 34.3k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로 토사 유입 등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전선은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18일 정상화될 전망이다.

광주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다. 1차 조사에서 65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에선 도로·교량 침수 519건, 산사태 42건, 주택·아파트 침수 264건, 농경지 침수 1천164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복구가 258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190억원, 서구 100억원, 동구 70억원, 남구 5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폭우 피해 처참 ... 복구위해 모든 지원”

문 대통령, 구례 5일시장·화개장터 등 방문 수재민 위로
“특별재난지역 신속하게 지정...정부 지원 금액 상향 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구례 5일시장을 방문, 침수 현장을 돌아보며 수재민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흙과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참혹한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특별재난지역 지원 금액 상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문 대통령은 구례 5일 시장 현장에 마련된 수해복구 지원본부에서 구례군수와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

방 유실의 위기 속에서 경찰, 소방, 군, 민간이 협력해 인명피해 없이 잘 대처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제 화상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들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문하게 됐다”며 “실제로 와서 보니 피해액 계산 없이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재난지역 지원 금액을 높이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민들이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라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이니 힘 내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폭우로 무너진 구례군 서시1교 주변 제방을 방문했다. 이 자

리에서 마을 관계자가 “소들이 50% 정도 폐사했다. 살아남은 가축들도 다음 날이면 죽어있다. 주민들이 다 울고 있다”고 호소하자 문 대통령은 “가축을 키우느라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공감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집중 호우 당시 민가 지붕위로 올라가 구출됐던 소들 가운데 한 마리가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다는 말을 듣고 “큰 희망의 상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회의실에서 수해복구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 “시군 단위로 의견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홍정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

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중욱 국립보건의연구원장,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어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으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고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 충남 천안시를 차례로 찾았는데 복구 활동에 최대한 눈을 끼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의전을 최소화하고 전용차량이 아닌 KTX를 타고 이동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수석급 이상은 이번 일정 수행에서 제외됐고 비서관급 최소 인원만 수행한 의전과도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하루 이동 거리만 767km에 달하고 귀경시간까지 포함하면 9시간이 걸리는 강행군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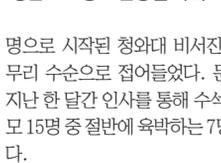
靑, 수석 추가 인선 ... 소통 정만호·사회 윤창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 국민소통수석에 대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난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한 데 이어 윤 사회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원



정만호 소통



윤창렬 사회

만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7월 초서훈국가안보실장임명

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비서관 임명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인사를 통해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7명을 교체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도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